

질박한 멋·자유분방함·독특한 예술미...

# 철화분청사기의 다양한 변주 즐겨볼까



최홍일 작 '꽃'

광주문예회관, 계룡산 도예촌 철화분청사기전

익살스럽고 소박한 향아리·편병 등 50여점 선봬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국립공원 계룡산 기슭 5,000평에 조성된 계룡산도예촌은 조선 초중기 계룡산에서 번창했던 철화분청사기의 산실이다.

1992년 전국에서 활동하던 젊은 도예가 18명이 철화분청사기를 복원하고 산업화 하자는데 의기투합해 자생적으로 예술마을을 조성한 지 26년.

당시 30대 초반이던 도예가들은 어느덧 50대 중·후반이 됐고 계룡산도예촌은 전국에서 예술가마을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장소로 유명한 장소가 됐다.

전통을 지키며 창의적으로 그 맥을 이어온 계룡산도예촌 도공들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우리 문화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되새겨 보는 자리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 마련됐다.

〈관련 인터뷰 19면〉

광주문예회관 갤러리는 15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권명희, 김성훈, 김용운 등 계룡산도예촌 도예가 10명이 참여해 작품 50여점을 선보이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전을 선보인다.

14일 방문한 갤러리는 작품 디피가 한창이었다. 광주 지역에서는 낯선 철화분청사기는 한 눈에 보아도 청자, 백자와는 다른 질박한 멋과 자유분방함을 뽐낸 풍경다. 고급스러움과 개성, 독특한 예술미에 흠뻑 빠져든다.

철화분청사기란 분청사기를 제작하는 7가지 기법의 하나로 백색토를 표면에 바른 뒤 검붉은

색의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 익살스러운 불고기, 당초문, 추상문 등을 그린 도자기를 말한다. 15세기 조선의 한쪽을 대표하는 자기로서 오직 공주 계룡산에서만 생산됐다고 한다.

계룡산 도예촌의 도예가들은 아늑한 산기슭 아래 모여 살며, 15세기 계룡산도예촌에서 만들었던 철화분청사기의 전통복원과 현대적 발전에 뜻을 모아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향아리, 편병, 접시, 장식품 등 계룡산철화분청사기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독특한 바다의 색감과 철의 색감, 다양한 모양, 크기로 표현된 계룡산분청사기만의 독특한 예술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작가들의 꿈과 열정, 예술혼이 묻어있는 작품을 통해 철화분청사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장에서 만난 윤정훈 총장은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계룡산도예촌의 작품 초대전을 갖게 돼 기쁘고 긴장되기도 하다"며 "화장도의 색감, 철의 배합, 점토 제질 등 철화분청사기의 다양한 변주를 살펴보는 것도 감상법 중 하나다. 광주 시민이 많이 오셔서 철화분청사기를 감상하고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청자, 백자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자기 중 하나인 철화분청사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전시다. 철화분청사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062-613-8357. /이연수 기자



임성호 작 '철화토끼'·김용운 작 '목향'·평정화 작 '철화물고기문양 장군병'·권명희 작 '휴식'(왼쪽부터 시계방향)

##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르멜

시립미술관, 박영택 교수 초청 19일 미술관 아카데미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네 번째 강사로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를 초빙해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강의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3시 시립미술관 대강당.

이번 강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추상미술인 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앵포르멜'은 추상표현주의와 유사한 유럽의 추상미술이며, 재료 자체의 물성성을 강조하면서 추상표현주의보다 더 급진적으로 그림을 해체하는 작품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유럽의 대표적인 앵포르멜

작가인 장 뒤뷔페, 장 포트리에 등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을 떠올리는 추상표현주의는 이번 강의를 통해 액션페인팅, 색면추상, 서체추상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잭슨 폴록,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등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박영택 교수는 KBS1 '명작 스캔들', 'TV 미술관' 등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으며, 인터넷방송 '넷향기'에서 '박영택의 미술강좌'를 진행했다. 미술관과 문화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수강생들이 칭찬하는 명강사다. /이연수 기자

## ACC, '문화정보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추진

아시아 국가 사서·연구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의 국공립문화예술기관들과 함께 '문화정보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

ACC는 아시아 국가의 문화정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러시아 아카데미 연구원, 국립 부랴트 도서관 사서, 몽골 국립도서관 사서,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사서 등 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10주간(6-8월)의 한국어 교육, ACC 및 관련 국내 유관기관에서 10주간(9월-11월) 전문이론강좌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자유주제를 선정해 개인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보고회(11월)에서 본인의 연구성과를 한국어로 발표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현장 탐방과 문화 체험에 참여한다.

/이연수 기자



박상용과 역사여행

〈25〉백제 의자왕

## 의자왕은 과연 폭군이었을까?

역사여행으로 아이들과 함께 부여를 찾습니다.

"삼국시대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가 있었지?"

"고구려 백제 신라요."

"고구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주몽"

"그럼 신라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김유신이에요. 김춘추요. 박혁거세요."

어 위인전기로 다뤄지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가는 백제 하면 뭐가 떠올라?"

"의자왕이요, 삼천궁녀요, 계백이요."

백제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의자왕이나 계백 그리고 삼천궁녀를 말하는 것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를 역사로 공부하는 우리에게 고구려와 신라는 왕조의 시작이나 전성기때 인물이 떠오르며 강한 나라였다는 인상을 남기지만, 백제는 말할 당시의 사건이나 인물이 백제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지금 이전의 세대도 그러하였고, 더 앞선 역사시기 조선, 고려, 더 멀리 백제가 망할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의 전형적인 본보기이지요.

한강 주변에서 시작된 백제는 고구려에 밀려 개로왕이 전사하며 5백년 도읍지를 떠나 웅진(공주)으로 급히 옮겨왔고, 70년후 재기를 위해 터를 잡은 곳이 사비, 지금의 부여입니다.

6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백제, 그 마지막 기

백제의 마지막 기억 간직한 부여 역사여행

부소산성 길 정상에 3천궁녀 전설 낙화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 전형적 역사 본보기

역이 있는 부여. 그러기에 부여로 역사여행을 가면 백제이야기가 주가 되어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박물관, 백제왕릉원, 궁남지를 코스로 돌게 됩니다.

낙화암은 안 가요? 백제의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낙화암 또한 백제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이지요. 낙화암은 부소산성 길따라 오르면 정상에서 만납니다.

백제의 왕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에는 아직도 백제 당시의 토성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산성 길을 따라 오르면 꼭대기 백화정 지나 낙화암에 닿습니다.

3,000궁녀 전설을 받아들이기엔 왜소한 규모 의 낙화암. 떨어질 타(槌)에 죽을 사(死)를 써서 타사암이라 불려지던 것이 시인묵객들의 감상이 더해져 낙화암이 되었고, 소설로 노래로 불려지며 삼천궁녀는 백제 의자왕의 폭정을 더 한층 강조하게 되는 사실 아닌 역사가 되어 버렸지요.

낙화암을 올랐던 반대길로 내려서면 고관사에 다다르고, 고관사 나무터에서 백마강을 가로지르는 황포돛배를 타고, 백제 구드레 나무터에 이릅니다. 이 구드레 나무터에서 660년 백제 의자왕과 백성 1만2,000명은 패망한 고국을 떠나 당

나라로 압송됩니다.

7월 여름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생포되어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적군 장군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지요. 두 달 뒤 당나라로 끌려갔고 그 해에 병사합니다.

1335년이 지나 1995년 부여에서 의자왕 무덤 찾기 팀을 꾸려 중국을 향합니다.

'낙양성 십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들'을 이리 저리 찾아보지만, 패배해 잡혀온 인근 나라 왕의 무덤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남성 낙양을 기반으로 그 동안 세워졌다 스러진 중국 땅의 왕조도 여럿이며, 세월마저 전삼백년인데요.

무덤을 찾을 길 없어 낙양 북방산의 흙 한 줌과 함께 백제 의자왕의 영혼은 백제 도움 사비로 되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계 백제왕릉원의 자왕단입니다. '릉'이 아닌 영혼을 모신 '단'이란 이름의 비석이 봉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의 일입니다.

의자왕의 영혼은 중국 낙양의 흙 한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시신이 묻힌 그 자리를 벗어났고 아직 당나라 땅 중국에 있을까요?

아니,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그의



부소산성 길따라 오르면 정상에서 만나는 낙화암.

모습을 제대로 그리게 만져질 성 싶습니다. 의자왕은 충신들의 말을 흘려들으며,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부패와 타락을 일삼아 망국으로 이르게 한 폭군이였을까요?

인류 역사가 있고 무수한 나라가 건국되고 멸망했습니다. 멸망하는 나라의 지배층은 죽거나 기득권을 잃게 되고, 피지배층은 새로 들어선 지배층에 다시 충성해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감싸 안아야 완전한 통합을 이

룰 수 있었습니다. 피지배층의 충성을 돈우려 이전 지배층의 무능력과 탐욕을 돈보여야 했지요.

이전 집단의 마지막 대표자를 폭군 내지는 무능한 왕으로 규정하고 새역사를 써야 했으니, 의(義)롭고 자(慈)애로운 이름을 가진 의자왕도 그 피해자가 아니었는지 의자왕 편에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체험학습동행(historytour.co.kr) 대표